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길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새벽에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직분자들의 무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시 119:147).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닌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2005년을 돌아보며 복음으로 역동할 2006년을 소망하는 우리 앞에 놓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먼저 직분자들이 이를 위해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벽 예배 담당 직분자들을 요일별로 정해었습니다. 직분자들은 매일 새벽을 깨워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신이 속한 날에 빠짐없이 나와 기도의 불길에 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온 성도들도 직분자들과 더불어 새벽에 기도의 불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위임목사님의 월요 새벽기도회는 요한 복음 8장 강해로 시작됩니다.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오니 전교인은 예배 시작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새벽 예배 담당 대상	강사
월	장로, 안수집사, 전교인 (4:50 시작)	위임목사
화	권사(1,2,3,4,지회)	부목사
수	찬양대원(오케스트라, 연주대원)	부목사
목	교회학교 교사	부목사
금	남·여 서리집사 및 권할	부목사
토	청년1·2부, 대학부, 청년전학생	부목사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역동하는 생명력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모든 성도와 직분자가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교회 행사

7일(수) 정기당회(수 2부 예배 후)

11일(주) 특별제직회(찬양 예배 후)

18일(주) 은퇴·근속자 포상(찬양 예배 후)

공도의회(찬양 예배 후)

20일(화) 성탄축하 찬양의 밤(교회학교)

23일(금) 메시아 찬양(연말찬양대)

25일(주) 성탄축하 예배(가족예배 예배 2·3부)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그 나타내심이 곧 성경임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곧 모든 진리의 권위요,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계시의 대하이다(겔 3:1,10,11; 마 5:18; 마 21:42).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계시는 모든 지식까지도 포함한다. 계시는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 계시요,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특별 계시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성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시 19:1-4; 롬 1:18-20). 이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불기동, 꿈, 환상, 모세 선지자 등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신다(창 1-4,11-18). 이 계시의 최종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다(요 1:14, 14:9; 골 1:15).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은 글로 쓰여진 계시이며 곧, 성경 자체가 계시다(히 1:1-3). 이는 성경을 기록한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감’이다. 영감은 인간 저자들로 각자에게 그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대로를 쓰지 않고 쓰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성경 말씀이 인간의 글인파 동시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The breath of God, 영감). 성경

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다(벧후 1:20). 성경 원문에서는 모든 단어들이 영감으로 된 것이다(눅 16:17, 24:44; 요 10:35; 22:18-19). 그리스도와 바울은 구약에서 사용된 특별한 단어들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한다(마 22:43-45; 갈 3:15,16).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번역관(회람)에, 히브리어로 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떤 부분들이 혹 의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인 성경 원리를 좌우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라는, 하나님의 도장(Stamp)이 성경 말씀에 많았다 적었다. 이것이 곧 성경이 인간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다(사 55:11). 즉, 성경은 다른 책들과 같지 않다.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의 말씀과 함께 계시며 그의 목적을 따라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늘 살아 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는 책이다(히 4:12).

성경은 완전히 성스러운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게 인간적이다. 많은 부분이 인간 저자들에게 의하여 쓰인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을 볼 때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신앙의 대부분은 그 저자에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성경책에 인성은 또한 개성과 또 서술 방법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다른 것들은 변역 중에도 나타내지만 원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각자 개인의 필요한 것들, 요구 사항도 나타나고 있다(딤후 3:13).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책인 것과 동시에 인간이 쓴 책이기도 하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다”(God-man Revelation), 성육신 하심과 같다. 무한하게 깊은 성경의 내용을 인간의 한정된 언어를 통하여 쓰인 것이다. 이 이변성은 절대적인 주관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와 같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계시로 완전히 권위가 있으며, 또 영감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로 환원하고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신성한 말씀을 쓰는 동안 자신들의 자유 의지를 활용하며 인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이변성은 사

람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일으킨다. 성경을 인간적으로 봄으로서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므로 성경에 나타난 인간적인 면들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이 인간에 의해 쓰였으므로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전 3:3).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경우가 만들어진 과정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하나님이나 사람이신 구주께가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를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인간에게 합하셨다(눅 1:35). 성경께서 사람을 감동하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말하게 하신다(벧후 1:20). 따라서 살아 계시는 말씀은 죄가 없시고, 쓰인 말씀은 틀림이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두가 극단적인 해석에 의해 신성이나 인성이 약화되는 일이다.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성경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여 만들어진 것과 같이 저자들이 성경을 감사하고 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역사해야 한다.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과오가 없었으나 해석할 때에는 과오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자신들을 성경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성경적인 조망방식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계시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쓰여졌을 때 역사하시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구된다. 해석하는 과정 역시 인간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인간 편에서의 논리적인 일관성이 조망되도록 함께 따라야 한다.

* “이로온 길” 2005. 1. 14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 2005. 12. 2까지 2006년 금요집회의 말씀은 글로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월 1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한 말씀의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신보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집회에 빠짐없이 나와 함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ANGEL'S APPEARANCE TO JOSEPH

(18)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 ...⁽²⁴⁾And Joseph arose from his sleep, and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and took [her] as his wife, ⁽²⁵⁾and kept her a virgin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Matthew 1:18-25)

An amazing thing happened to Joseph before Christ's birth.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His life had taken what seemed to him a turn for the worse. The woman he was engaged to marry was pregnant, and he was not the father. Can you imagine how much pain and suffering he experienced when he found out that his beautiful bride, Mary, was having someone else's baby? As a believer, he turned to the Scriptures for help. Moses' law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take Mary for his wife. Consequently, he considered sending her away secretly, so as not to disgrace her (v. 19). Most men with his predicament would let their anger and jealousy seek justice by having the woman stoned, but Joseph was different. He was a kind and thoughtful man. The Bible tells us he was a "righteous man" (v. 19). He knew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it was extremely troubling to him. He went to bed suffering over it.

As Joseph tossed and turned in his sleep, an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Joseph, son of David". Joseph was not a rich or powerful man, just a humble carpenter, but the angel referred to him as the "son of David". This greeting from the angel signified a very important message from heaven. The Israelites knew that the promised Messiah had to come from the line of David, whose kingdom and throne God established forever (2 Sam. 7:16). God's great covenant with David ensured that his house, Kingdom, and throne would be established forever (1 Ch. 17:14), and Jesus Christ was the ultimate fulfillment of these promises (Lk. 1:31-33). God's people waited over 700 years for His arrival. They knew that their current king, Herod, was not a son of David. Joseph's lineage was part of God's plan to fulfill the prophecies of old. Although he was not the natural father, his marriage to Mary placed Jesus within David's dynasty.

The angel of the Lord told Joseph,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v. 20). Joseph was definitely scared to marry her. The Scriptures were quite clear about adultery. When Joseph was seeking a solution, he could never have imagined her immaculate conception, but God did. Mary was a descendant of the Levites. The Messiah had to be a son of David. Joseph needed to take Mary for his wife, not only to fulfill the prophecy concerning Jesus' genealogy, but also His birthplace. Micah's prophecy stated tha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would be born in Bethlehem (Mi. 5:2). The Roman government ordered a census, and everyone had to register in their own city. Joseph resided in the city of Nazareth, but he was of the house and family of David, so he

needed to register in Bethlehem (Lk. 2:4). God not only used Joseph the son of David and Mary the virgin, but the Roman government to perfectly set-up His will.

The angel of the Lord also told Joseph,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v. 20). Joseph contemplated all the biblical angles in his effort to solve Mary's sinfulness problem. He tried to come up with the very best solution, but his answer was very different from God's answer. God revealed that Mary's conception was not sinful, but holy. Her pregnancy was not to bring death, but salvation. She was a blessing, not a curse. The world was not to destroy her name, but glorify it. You can imagine his relief at this news. He had it all wrong. His fiancée was pure. She was carrying God's child. He was about to become the earthly father of God's most wonderful Son,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v. 21). Joseph received the good news!

God's message from heaven to Joseph really happened, "Now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v. 22). The New Testament tells us, "And Joseph awoke from his sleep and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as his wife, but kept her a virgin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vv. 24&25).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Is. 7:14). Immanuel means God with us. Mary was a virgin before she married Joseph, and she remained a virgin until after Jesus was born. Isaiah's prophecy foretold her virginity, so that at Christ's wonderful birth all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oncerning it came to fruition. The Savior of the world came just as God planned. He came to save sinners. His birth gave the whole world the opportunity for new birth.

My dear friends, when you come to the Lord with problems, please do not try to solve them your way and in your time. The Lord God will answer your prayers. He always brings the best messages. Joseph's message from heaven came by an angel. His believing and obeying turned his suffering into joy, made what seemed like a curse to be a blessing, and changed his fear to peace. I do not know what method God will use to deliver your good news, perhaps it will be today's Christmas message. Like Joseph, I hope the Lord God will appear to you this Christmas season and explain to you who Jesus Christ is. I pray, like Joseph, that you will really believe it. Amen. ♣

다들 주일 설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18-25)



김성완 목사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요셉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꿈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불행으로 치달으려 할 때였습니다. 자신과 정혼했던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자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19절). 이런 상황에 처한 남자라면 대부분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사려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19절). 그러나 요셉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번민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막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세아”라고 부르는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셉은 부자나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이 호칭은 매우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된 메시야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6).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대사 17:14).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눅 1:31-33). 하나님의 백성들은 7백 년 넘게 메시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왕으로 집권하고 있는 헤롯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윗 왕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 말라”(20절).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간통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메시야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또한 미가의 예언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야 예수는 베들레헬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미 5:2). 마침 로마 정부가 인구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도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

헬까지 가야 했습니다(눅 2:4).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20절). 요셉은 마리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율법을 보며 애썼습니다. 그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잉태가 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녀의 잉태는 죽음이나 구원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도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순결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21절). 요셉은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22절).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24-25절). 구약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도 동정녀였지만 예수님을 낳기 바로 전까지도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에 관해 이미 이사야는 예언했었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이 세상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이 계획한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오십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이 그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던 것이 축복이 되었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들려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듯이 여러분도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주변이 복음화되는 꿈을 가지고 또다시 전도 현장으로



이형수 (장로, 전도위원장)

성탄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가을로 들어서기 전부터 성탄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찬양뿐만 아니라 그 성탄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말과 같이 의아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설교의 주제가 “성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까지 우리는 매 시간마다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2005년 성탄절을 지킴에 되었습니다.

가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의 일들을 가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기당회에서 2006년도 인사를 발표하였고 이에 각 부서의 인사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2006년도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교회의 신년도 행사표도 완료되었고 각 부서의 예산안도 제출되었고,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 한 학년씩 전진했고, 신년도의 전도·선교 계획도 수립했고, 선교를 위한 CMTCD도 12월에 실시합니다.

2005년을 돌아보며

교회의 모든 전도를 물적, 인적 지원이 아닌 직접 전도로 바꾸고 ‘전도하는 전도회’로 체질을 바꾸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05년도는 126개 남녀전도회와 총현전도회 중심의 실제적인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전도회는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전도의 날’로 정하고 월례회의 후에 전도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매주 전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방방하던 교회주변 사람들이나 각 업소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가 되는 사이가 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방방하던 전도회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만이 참여하던 마리아 전도회원들도 탁아부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아 주자 이제는 100여 명 이상이 전도 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여 명이상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주변에는 저들의 굳은 마음과 닫힌 출입문을 열 수가 없어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전도의 대열에 동참할 뿐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십삼 년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렘 25:3)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며 주님이 허락하실 날을 바라며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2006년을 바라보며

전도위원회는 모든 전도회의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위하여 교회에서 도보로 5~2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역을 교회 주변으로 정하고, 그 지역을 1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 내의 7개 전도회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대학부와 청년1, 2부의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방식도 노방전도

가 아니고 구역 내의 모든 주택과 업소를 한 집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축호전도를 하려 합니다.

이 같은 교회주변 전도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작정만 한다면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고, 5~20분 거리에 있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택하여 언제든지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인사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을 관제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끝까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회원들이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알기에 피차 기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전도회원을 배가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총현전도대의 내실 있는 훈련과 대원 확보에도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 회개, 믿음의 길로

그 동안에 교회 앞에서 끈질기게 전해진 예수, 십자가, 복음 전리의 실천적인 반응인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완하게 구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고전 2:4, 5)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시키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곁에서 지켜보라고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전도의 현장인 열방과 교회 주변으로 나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설레며 가슴 벅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 있는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선교 지역에서, 이 교회 주변에서, 초대교회와 그랬던 것과 같이 선한 소동이 일어나고(행 17:1-15, 19:23) 복음 중거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행 2:43, 19:14-19), 큰 기쁨(행 8:8)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메시지만다 강단에서 외친 예수, 복음, 십자가는 이제 각 개인에게 실존적으로 자기 부인(마 16:24)과 회개(마 3:2)와 믿음(요일 5:4)으로 집약되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디 서든 자기 부인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이 전도자의 모습은 더더욱 그러해야 함을 알기에 앞장선 전도회장과 회원들은 어디 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주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는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 매어만 전도하는 일이 자기 자랑이 아닌 주님의 명령으로, 자기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며,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삼동으로 이사한 지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유흥과 환락으로 번쩍이는 교회 주변이 복음화되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할 것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 외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되십니다.”



영적 회복을 주신 예수님!

1999년 대학 입학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영어영문학을 공부하여 장차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간 캠퍼스에서 지낸 뒤 떠난 미국 단기 선교사 기간 중에 경험했던 일로 저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한 저는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카투사였지만 전투병을 지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용산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었고 배치된 소대의 고참이 충현교회의 대학부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향한 구제적인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3월 복학을 하면서 우연히 충현교회 형제들이 있는 하숙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대학부 집회에 참석하고, 정식으로 충현교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영적 질서와 영적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과 매주 나를 기다려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죄를 씻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공과 부전공 공부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있고, 동시에 취업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시련을 보지만 계속 실패하고 바쁜 생활의 연속이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잃어 버렸던 비전을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새가족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대학 졸업 후에도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명기(대학부)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래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만에 차 있던 저는 "하나님은 왜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할라"고 했으며 "십일조는 왜 내라고 했느냐"라고 따지며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 뜻대로 살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때에 보잘것없고 어눌한 말로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생각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의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주님을 육하고 믿지했던 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무거운 짐을 저 주셨습니다. 복음의 행방자였고 필박자로 살았던 저의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거둬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 전도할 때마다 많은 필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도하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더욱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때, 저는 저의 인간적인 열심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심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모임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충현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충현 전도대를 통하여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특히 가뭄이 불끈한 신 권사님들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전도를 하는 일로 인해서 교만한게되지 않도록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제가 저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화순 (집사, 3교구)

"충현전도대 전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여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쉬울 뿐!

♥ 같은 학교 형들처럼 함께 교회에 왔기에 공존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석 때 한 번 빠지면 정근한 것이 아쉬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 생활하겠습니다. (한동원)

♥ 이십 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여러 번 다녔서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참된 예수는 만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생애 보면 내 중심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이십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남궁세진)

♥ 주님을 믿게 되어 주님 안에 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성우)

♥ 6개월 동안, 이 수료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마지막 양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전하여 오라고 권하여 주신 새가족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영호)

♥ 70평생 예수님을 반대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전도로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나온 것이 후회해 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준자)

♥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영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종국)

♥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믿음이지만 앞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김진욱)

♥ 주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기쁘고 외로움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김경림)

♥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했는가 생각에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늦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들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정원호)

♥ 57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학교 동창이 너무 늦게 전도에 의해 나오게 된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일에 자주 빠져 개교를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김호성)

♥ 저의 가정은 태종교를 믿다가 제가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머님과 남편과 아들을 전도했는데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 가족에 응답하셔서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애원)



♥ 이렇게 새가족부를 수료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새가족부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진)

♥ 저는 원소장이며 고집이 세서 아내와 새가족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 하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교회에 다닌 4살 난 아들이 집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저를 한 번 도와줘서 신앙 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조경호)

♥ 주님의 은으로 수료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관준)

(절대-관심집)

교회 탐방 90

에스더 전도회(4교구)

이 몸을 드립니다!



4교구 에스더 전도회

원들은 이미 이미 들던 바와 같이 전도의 용사들이었다.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은 전도 이전에 자기 부인을 먼저 실천하였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전도의 사람들이 된 이들의 고백이다.

에스더 전도회는?

4교구 에스더 전도회의 2006년도 표어는 '인정받은 일꾼' (딤후 2:15)입니다. 표어에 담긴 일꾼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 회장)
교구 안에서 에스더 전도회원들은 주의 일을 하기에 적절한 열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구의 여러 여전도회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

2005년의 율리암의 온전케?

교회주변 전도 외에 영도표에 있는 소속자 섬터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였습니다. (한기희 권사)
감동역과 역감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올해 여념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분들은 지금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미주 집사)

병원 전도를 하였습니다. 장기 환자분들을 양육하는 일원으로 성경책을 전달하였습니다.

(황 향 집사)

2006년을 위한 소망은?

2006년의 새로운 계획 역시 우선 전도지요.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무료 병원에 서는 진로 전체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에스더 전도회에서 맡 예정입니다. 마침 교회에 존치되어 있는 외국어 전도지와 외국어로 훈련된 전도회원들은 그야말로 '너호와 이해'가 되는 셈입니다. (이영선 집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미주 집사)

주의 일꾼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은?

에스더 전도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연합하여 일을 하면서 '성도가 함께 증거함'을 배웁니다. (이영숙 권사)
지배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대원들을 보면서 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영선 집사)
산조와 화강으로서 장례식 때, 봉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성의(誠意)를 관리합니다. (윤숙성 집사)
'주간총회'에 도움이 되었어요. 전하기만 하면 단 한 줄이라도 읽을 것을 학식합니다. 전도하면서 언급으로 만들어진 신문이라고 말하며 꼭 읽기를 권유합니다. (황 향 집사)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의 일을 우선 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하루를 새벽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영선 집사)
즐거움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합니다.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강경순 집사)

제가 도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주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필요로 했고 입술이 돌아서 찬양을 할 못하지만 찬송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

감사의 제목은?

불신 가정의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어느 날 온 가족이 구원 받았습니 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한기희 권사)
구역장의 임무를 보화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영선 집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집사)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황 향 집사)
마지막 시대에 관한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깨우쳐 주신 것과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윤숙성 집사)

성도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자기 부인은 참 중요지만 순종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영숙 권사)
위akest을 버려며 복음에 응답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낫추는 선교의 자세로 살고 싶어요. (이미주 집사)
선교를 통해 더욱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강경순 집사)
'무엇을 드릴까' 늘 생각하다가 이 몸 드리게셨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영숙 권사)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과 공동체인 4교구 에스더 전도회를 통해 교회 주역과 이 땅과 열방이 복음의 산실이 될 것이다. (전집실)

네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나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코흘리개 시절 어머니의 손 슬리퍼를 끌며 그 찬란하게 빛나던 십자가가 있는 곳, 교회에 다닐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통과 메시아 기다립니다" 어둠의 권세의 세상에서 포로처럼 끌려다니다 방황하며 울며 지친 그 때에도 다시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땅자의 비유에서처럼 땅자는 바로 저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저를 부둥켜안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갈 길을 인도하소서" 저에게 이 찬양은 소망의 주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서 진정한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길 원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만 백성이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로 채워 주시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깊고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컷세마 돌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박경희(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함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45	지한정	1	청년2부	이연순(1)	2962	장도환	15	청년2부	박경순(5)
2946	김준환	1	청년2부	이연순(1)	2963	후연	19	외선부	김지선(7)
2947	최신미	19	청년1부		2964	박은민	2	청년1부	김정연(8)
2948	최원진	19	청년1부	박혜선(16)	2965	김형의	1	청년3부	
2949	김지선	4	대학부	윤숙성(4)	2966	전지연	19	청년1부	김정숙(8)
2950	양지은	19	청년1부	김준선(9)	2967	김우진	19	청년2부	한영준(1)
2951	손숙경	19	청년1부		2968	김성숙	15	청년1부	
2952	방미라	19	청년1부		2969	박희영	8	청년2부	김정숙(10)
2953	김미영	3	청년2부	신효숙(1)	2970	김영호	2	청년2부	김정숙(10)
2954	정원순	13	소망부	김영희(18)	2971	인현	19	외선부	나영실(12)
2955	윤상갑	19	중동3부	김승준(9)	2972	김달배	19	외선부	한정현(5)
2956	김효진	19	중동3부	최문선(1)	2973	배비	19	외선부	박용기(7)
2957	손동희	4	청년2부	양태주(1)	2974	이영후	19	외선부	저르길(19)
2958	김정홍	19	대학부		2975	영은미	19	외선부	저르길(19)
2959	차희오	5	청년2부	최동선(7)	2976	최비라	19	외선부	저르길(19)
2960	김형진	10	소망부	김영복(10)	2977	사토니	19	외선부	이향선(4)
2961	이소연	19	중동2부	이연희(3)	2978	홍	19	외선부	김석영(7)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이종대 27점	정원민 42점	박인기 94점B	류병희 12점	김영훈 95점B
이국경 42점	안창득 42점	나광영 112점	정진호 122점	김동태 32점
고광환 132점	위원장 132점	김익찬 142점	장 준 92점	임현태 72점
이희식 62점	최종철 152점	하종철 152점	이치민 102점	정종수 162점
양재용 양국영	이성진 152점	조규호 32점B	최성규 102점	이재영 88점B
이경준 242점	이종수 242점	김윤호 52점	윤승일 102점	황진섭 102점B
정성영 92점	이종훈 82점B	김태식 88점B	김자훈 102점C	
■ 연도조사				
신두자 122점	윤인수 102점	한영준 122점	김연식 112점	홍순애 122점
이옥주 52점	김보성 152점	안태순 152점	김진연 122점	조수환 122점
강덕원 142점	최문식 72점	전은호 162점	김지호 122점	김지자 172점
이수경 사계동원	김영덕 152점	이복순A 192점	류진호 62점B	한성일 132점
임태주 42점	이성기 소문부	옥미자 사계동원부	이복순B 52점	
■ 찬양활동 담당교사				
■ 찬양지휘자	서문성	김원섭		
■ 찬양배경자	김진애			
■ 찬양지휘자 겸배경자	신소현	■ 찬양연주자	장연희	